

여성 역사가 도란도란 피어나는 공간

서울여담재

글 편집실 사진 제공 천장환



- ❶ 현대식 통유리 건물과 한옥 처마의 아름다운 조화
- ❷ 서울시가 옛 원각사를 리모델링해서 재탄생시킨 서울여담재 외관



종로구 창신역에서 내려 낙산공원을 향해 가파른 골목을 오르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오묘하게 공존하는 공간을 하나 만나게 된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반듯한 통유리 상자 위에 우아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한옥 지붕이 올라간 건물. 서울시가 옛 원각사를 리모델링해서 재탄생시킨 서울여담재(女談齋)다.

국내 최초의 여성사 도서관

서울여담재는 국내 최초의 여성사 도서관이자 여성 역사 문화공간이다. 원래 이곳에는 불교 태고종 '단종대왕 천도 도량' 원각사가 있었다. 말 그대로 단종을 위해 기도를 하던 사찰로, 단종비(妃) 정순왕후가 단종 유배 후 궁에서 나와 시녀들과 댕기, 옷고름 등을 만들거나 옷감을 염색해 팔았던 곳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여성들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인 셈이다. 단종은 너무나 애통한 역사로 회자돼 왔지만 폐서인으로 신산한 삶을 이어간 정순왕후는 오랫동안 잊혀졌다. 그렇게 잊히고 배제된 삶이 지난 세대 여성들의 삶과 닮았기에 여성역사 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었을 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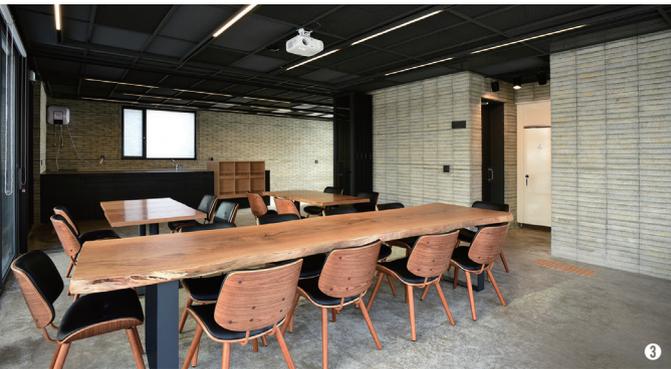




1



2



3

- 1 지하 3층 도서 열람실에는 여성사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도서 4,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 2 지하 2층 전시실에서는 여성을 주제로 한 상설 및 기획 전시가 열린다.
- 3 누구나 방문하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2층 교육소통공간.

처음엔 원각사를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 했지만, 과거 역사와 현대성이 어우러지는 방향을 택했다. 원각사의 건축 요소 중 지붕과 나무기둥, 하부구조 골조는 살리고, 그 사이로 유리 형태의 공간을 끼워 넣었다. 그리하여 한옥 지붕을 쓴 유리 박스 같은 독특한 형태가 완성됐다. 신축한 별관에는 여성역사 배움공간이, 원각사를 리모델링한 본관에는 여성사 전시공간과 여성역사 서가, 미디어자료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여성역사 서가에서는 여성 역사인물, 생활사 자료, 구술자료 등을 통해 지역별, 시대별 여성사 자료도 만나볼 수 있다.

현대적 모습으로 구현된 설화

현대식 통유리 건물과 한옥 처마의 아름다운 조화 못지 않게 눈에 띄는 공간은 본관 2층의 어린이 도서관과 1층의 여성역사 서가가 연결되는 계단식 공간이다. 정순왕후 설화에 나오는 '거북바위'(단종이 거북을 타고 승천하는 꿈에서 깨어난 왕후가 이곳에 오니 바위가 있더라는 설화)를 모티브로 계단을 감싸는 책장을 디자인하여 아이들이 책장 주변에 편하게 둘러앉아서 책을 읽고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거북바위 근처에 '지붕유설'을 남긴 이수광(1563~1628)이 머물던 비우당(庇雨堂)도 복원돼 있다.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의미의 이 집에서 그는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을 썼다. 초가집과 여담재가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편안함 속에, 너무나 작은 초가집에서도 후대를 위해 큰 역할을 한 옛 선비의 정신이 울림을 준다. 🐼